

농어촌공사 안동지사·안동소방서 옥동119안전센터, 합동 소방훈련

백한철 기자 cowspig@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6.10.22 20:06



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제공



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제공

[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지난 21일 안동지사 청사에서 안동소방서 옥동 119안전센터와 지사 직원 등 30여 명이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6년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청사 6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하여 화재 신고, 직원·민원인·수급업체 대피훈련, 화재 초기 진압, 합동 진화

행했다.

또한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 장비 사용법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심장제세동기 교육을 병행해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

박승표 지사장은 “방문 민원이 많은 청사 특성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대비한 평소 대피 훈련과 초기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훈련을 통해 안전 공백을 없애고, 지역민과 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청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